

강진 한우산업 새로운 도약 모색

강진군-한우협회와 한우 발전방안 간담회 1등급 출현율 향상 방법·소득 향상 등 논의



강진군이 한우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12일 강진군에 따르면 군은 이날 강진 착한한우 명품관에서 강진군 한우협회와 한우산업 발전방안 간담회를 가졌다.

강진 한우산업 새로운 도약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한우인의 소득 향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강진원 강진군수와 윤순성 강진군 한우협회장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군 관계자는 "한우 공급 과잉으로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경영 안정화를 위해 거세우 계

획 출하, 저능력 암소 선제적 도태, 송아지 번식에 신중을 기하는 등 한우농가의 자율적인 수급 조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군과 한우협회는 훌륭한 유전자를 갖춘 우량암소가 낳은 우량송아지를 가능한 관내에서 사육 및 거래하고 송아지 생산에 국한된 한우 암소의 경제적 가치를 고기용으로 확대해 농가 수익 향상 및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 비육용 암소 시장을 육성하자고 의견을 모았다.

강진원 강진군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강진 한우 전국브랜드 육성을 위해 애쓰는 한우협회 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군과 함께 한우산업 집중육성으로 지역경제 핵심 동력이 돼 달라"고 말했다.

윤순성 강진군 한우협회장은 한우인들의 소통과 화합 단결을 강조하며 "한우협회가 농가 소득 및 경영 안정화를 위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강진군은 각종 수급불안 상황에 대비해 한우협회 등 관련 단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1등급 출현율 향상 및 한우 농가 소득 향상을 위해, 2024년 한우산업 신규 정책을 발굴중이다.

강진군 한우협회는 지난 2013년 9월 출범해 군 한우협회와 읍·면 한우협회로 조직돼 있으며, 회원은 총 420명이다.

강진=김영일 기자

장흥군, '안전한 귀향길' 추석맞이 풀베기 작업

도로·가로화단·소공원 등

장흥군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풀베기는 고향을 찾는 귀성객들에게 쾌적하고 아름다운 생활환경과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탐진강변 잡초와 잡목정리, 주거지 주변 및 도로변 풀베기 작업을 실시할 예

정이다.

대상 구간은 주요 도로, 가로화단, 소공원 등이다.

장흥군 관계자는 "안전한 차량운행 및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마을주변 환경정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장흥=김도영 기자



완도군,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길 올랐다

비파 와인·농축액, 색깔보리 커피 등 3종 수출

완도군은 지난 9월 8일 완도비파영농조합법인 가공 공장에서 '완도 농산가공품 중국 첫 수출 기념식'을 가졌다.

기념식에는 신우철 완도군수와 허궁희 완도군의회 의장, 박재선 군의원, 박홍재 전남농업기술원장, 이복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문걸 중국 JHE글로벌 대표, 김수만 비파영농조합 대표, 오진영 유자발전소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수출은 전라남도농업기술원의 「전남 농식품 수출 확대 마케팅 보드 육성 사업」에 완도군이 선정되면서 추진됐다.

수출 상품은 완도 대표 농산물을 활용해 만든 비파 와인, 비파 농축액, 색깔보리 커피 등 3종으로 JHE 글로벌을 통해 광양항에서 선적, 중국에 도착한 후 서안, 상하이, 온주시 등에 풀리게 된다.

상품은 온오프라인을 통해 홍보 및 판매될 예정이며, 해외 판로 확대도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완도군은 중국 JHE 글로벌과 10여 차례 이상 협의를 통해 완도 농특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한 결과, 비파 음료 및 와인, 색깔보리

커피, 색깔보리 해초 면, 유자 젤리 스틱, 전복 비파 음료 등 6종을 올해 말쯤 수출하기로 협약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 중국 등으로 완도 농산물이 수출된 것은 농업인들의 땀과 노력의 결과라 생각한다"면서 기념식에 참석한 농업인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완도 농산물이 더 많은 해외시장에서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JHE 글로벌의 이문걸 대표는 "이번에 수입하는 완도군 농산가공품은 중국 내 가장 큰 규모의 박람회인 중국양림농고회에서 판매하고자 한다"면서 "완도 농산가공품이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완도군은 2017년부터 농산물 수출 판로를 개척해 왔으며 2018년 '완도자연그대로미(米)'를 말레이시아, 미국, 러시아에 수출했고, 특히 러시아에서는 10년간 1,000톤(30억 규모)을 수출하기로 협약했다.

완도=기동취재본부

진도군, 청년 창업 위한 창업스쿨 오늘 개강한다

진도군이 청년 창업스쿨을 개강한다. 청년 창업스쿨은 창업을 원하는 청년 농·어업인의 제품 판로 확보와 판매역량 강화 지원을 위해 무료 라이브커머스 교육이다.

교육은 오는 9월 14일부터 6주동안 청년센터에서 진도군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매주 목, 금요일, 총 12회 진행된다.

라이브커머스는 온라인 상에서 판매자와 소비자 간 실시간 소통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으로 MZ세대부터 중년층의 주된 소비패턴으로 자리잡고 있다.

교육과정은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의 이해 ▲라이브커머스 카테고리별 상품 PT ▲상품별 핸들링 ▲라이브커머스 실전 노하우 및 방송 규정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현지 쇼호스트 아카데미 대표강사를 초빙, 모의 방송 등 교육과 실습을 통해 라이브커머스 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계획이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앞으로도 청년들의 성장과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진도=조상용 기자

해남군, 노후 하수관로 정비 '속도'

사업비 136억 확보...내년부터 2026년까지 해남읍·삼산 구립 등 12.1km 정비

해남군의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반영되면서 속도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내년 정부예산안에 해남읍 등 5개소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송지 영평 하수관로 정비사업 등이 신규사업에 선정되면서 국비 81억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136억원을 확보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2024년부터 2026년까지 해남읍과 삼산 구립, 삼산 매정, 북평 영전, 북평 신기 12.1km에 대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가 실시된다.

아파트와 거주인구가 늘면서 하수 유입 유량이 늘고 있는 해남읍을 비롯해 처리장 유입 수질이 낮아 정비가 시급한 면 단위 하수처리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주거 생활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와 함께 송지면 미야·영평 마을에 대한 하수관로 정비사업도 신규로 추진된다. 영평마을 일대는 생활하수가 제대로 처

리되지 않을 경우 인근 바다 양식장과 갯벌, 농경지 등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 해양생태계 오염이 우려돼 하수관로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영평마을 일원에는 총 사업비 34억여 원을 투입해 하수관로 2.7km와 100여 가구에 대한 배수시설을 정비하게 된다.

해남군은 농어촌 지역간 균형발전과 취약지역의 하수처리구역 확대를 통한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하수시설 신설 및 노후시설에 대한 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남읍 공공하수처리장 증설 사업 등 17건의 계속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내년 사업을 포함해 총 사업비 1187억원(국비 751억원)을 확보해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군민의 불편이 우려되지만 군민들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해남=기동취재본부

전라남도 미래를 이끌어갈 히든카드!

세계의 중심으로! 풍요로운 일자리로! 아름다운 미래 가치로!
전남의 미래가 새롭게 펼쳐집니다!